



아리아, 오브제 레퍼지 박스, 2017



아이 디얼 다리아, 오브제 레퍼지 박스, 2017

# 일상- 예술이 되다!展

초대 작가

조창환 양나희

Benjamin Chonghan Cho Yang, Na Hee

*Daily life*

*Becoming Art*

2021. 12. 3 (Fri)

▶ 2022. 1. 23 (Sun)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1층

\*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주최  
주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무당로 116 ☎ 061-270-8300







# 일상- 예술이 되다!展

초대작가

조창환 양나희

Benjamin Changhuan Cho Yang, Na Hee

2021. 12. 3(Fri)

▶ 2022. 1. 23(Sun)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1층

※휴관일: 1월1일, 매주 월요일 (관람료 무료)

Daily life - Becoming Art

## 인사말



### Greeting Message

노적봉 예술공원미술관의 특별초대 전시 '일상-예술이 되다'展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 새롭고 독창적인 전시회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 온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이 준비한 이번 기획전시는 혼한 일상을 예술로 표현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산물을 미술재료로 재탄생시켜 작품화하고 특별한 전시를 해주신 조창환, 양나희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이후 배달이 늘어나고, 야외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생활쓰레기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재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상자와 레고 장난감 등의 생활쓰레기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의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시가 많은 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리에 마치길 바라면서, 전시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의 일상도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목포시장 김 중 식

## 축 사

## Congratulatory Message



큰 보람과 새로운 희망 속에 한해를 보내는 12월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연말연시 특별초대 기획전시 '일상 - 예술이 되다 展'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을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한 작품으로 전시에 도움을 주신 조창환, 양나희 작가님께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목포는 전국 최초로 예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지금도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문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목포를 지키며 예향 목포의 맥을 이어 주는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초대전은 폐품에 새로운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야인 정크아트를 통해 인간과 운명공동체인 지구 자연환경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구환경 위기 문제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목포시의회 의장 박 창 수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연말연시 특별초대기획전시

## 〈일상-예술이 되다〉

### 전시개요의 글

Daily life – Becoming Art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전남-공립13-2014-01호)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특별초대기획전시 〈일상·예술이 되다〉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는 효용 가치가 소진되어 버려진 사물에 예술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재창조하는 조창환, 양나희 작가를 초대하여 지구 환경 위기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성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현대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무수히 버려지는 폐기물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작가들은 오브제로 재활용하여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이것을 ‘정크 아트(JUNK ART)’ 또는 ‘업사이클 아트(UPCYCLE ART)’라고 하며 이번 조창환, 양나희 작가의 전시 작품들 또한 정크 아트 개념에서 접근하였다. 다양한 제품들의 일회성 포장재로 쓰고 버려지는 골판지와 패키지 박스라는 공통된 재료들을 가지고 두 작가는 전혀 다른 표현 방식의 조형적 언어로 일상을 예술화한다.

조창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중하게 제작되어 구매자에게 제품이 도달하는 순간 그 기능이 다하여 버려지는 패키지 박스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붙이는 연속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입체화시킨다. 사람의 두상과도 같은 입체적인 형태와 컬러풀한 색감들로 어떠한 구체적인 실체가 있을 듯 하나 이 모든 과정은 재료들 간의 우연한 만남의 결과이다.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 목적으로 제작되는 레고 등의 블록 조각들을 사용한 〈제한적 자유〉 시리즈는 몇 가지 형과 색의 오브제로 각종 규제의 범주 안에서 무한적이지 않은 자유에 대한 철학을 조형 언어로 표현하였다.

---

“피즐 조각이나 레고 블록의 요체는 각각의 모듈이 동일한 규격의 요철이 있는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가 포화상태의 도시문명 속에서 탐험하듯이 찾아낸 각종 플라스틱 오브제의 색깔 모듈들은 그 자체 안에 이미 그것들을 쏟아낸 도시의 일가를 품고 있는 자신만의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가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오브제 파편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기존의 모체에서 떨어져 나온 사물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영토를 찾아주는 동시에 그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규격과 제한적 자유를 통해 저절로 조형 행위를 수행해내는 프로세스로서 스스로를 탈영토화하는 행위이다. [중략] 이처럼 그의 작업은 조형 요소 자체의 내적 질서에 의해 스스로 증식하여 세상을 채워 나간다. 그것은 어딘가 수분이 거의 없는 극한의 건조한 환경에서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돌돌 말린 채로 지내다가 아주 오랜만에 비가 오거나 하여 다시 수분을 만나면 생생한 식물로 되살아나는 부활초(復活草)의 생성을 닮았다.”

---

위의 글은 2020년도 조창환개인전〈제한적 자유〉(성옥기념관 갤러리) 도록에서 서길현이 쓴 평문<sup>1)</sup> 일부 내용으로 조창환의 작품 모티브에 대한 원천을 서술하였다. 조창환은 산업사회의 부산물을 오브제로 기존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방식과 정신으로 작품에 임한다.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감성에 의한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옹기 작품들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또 다른 일상과의 우연한 만남이 기다린다.



양나희는 누군가에게는 생존 수단이 되고 예술가에게는 작업의 원천이 되는 버려진 골판지를 수집해 자르고 이어 붙여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대의 풍경을 종이부조 회화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 버려진 종이상자들은 그림으로, 그림 안의 기억으로 되살아나 우리들 자신에게 일깨워주기를 희망한다. 대량소비와 물질만능주의가 모든 것을 휩쓸고,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현대 소비사회의 단면과도 같은 대량으로 폐기된 종이상자들을 이용해 작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리고 버려지거나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나간 것, 잊혀 쓸모없는 것, 소외된 것, 버려진 것 등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삶의 태도와는 상이한 감성을 향해 있다. 이는 정신없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녀만의 사유 방향이 아닌가 싶다. 이 사유방향은 노동집약적인 작업 과정, 대상의 용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 대상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녀 스스로 바라보는 사회 속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정서에 관한 성찰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그녀가 ‘재개발’ 지역을 예술적 소재로 선택하고 활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골판지를 작품의 재료로 선택한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가장 급속도로 발전한 도시 공간은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기계적 방식으로 창출되고, 그러한 개발의 과정에서 인간의 삶 역시 소모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예술적 소재와 재료의 선택, 그리고 단지 도구로써만 그 존재 의미를 갖는 이 두 영역에 대한 그녀의 깊은 해석은 유용성이라는 가치 아래 치달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반시대적인 그녀만의 예술적 고찰이다.”

양초롱 평론가는 위와 같이 양나희의 골판지를 활용한 삶과 풍경 작업의 당위성을 말했다.<sup>2)</sup> 양나희의 ‘삶, 풍경’ 시리즈는 골판지의 종이재질이 갖는 부드러움과 고른 골들이 만들어내는 두께와 음영을 이용해 입체감 나는 부조 효과를 쌓고 그 위에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풍경들은 그만큼 시각적 실재감과 함께 두터운 정서적 깊이를 담아낸다. 골판지 원자재인 나무소재를 통해 문명의 이면의 자연생태환경을 환기시키면서 정겨운 골목풍경이나 어스름 저녁노을, 별무리 지는 달동네 풍경들로 시·공간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본 전시는 일상의 폐품을 작품에 차용함으로써 자연자원 보존과 환경 파괴 경고 등 녹색환경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정크 아트 장르에서 접근해 보았다. 두 작가의 재료적인 맥은 같지만 표현적인 결이 상이한 예술적 접근법을 통해 표현매체와 기법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전시 주제가 담고 있는 지구 환경 보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모든 시대의 미술은 그 사회를 반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정크아트는 정해진 이미지나 틀에 갇히지 않은 사고와 상상력으로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담아내며 환경과 예술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주고 있다. 폐기물을 미술재료로 활용하여 예술로 승화시킨 이번 전시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가 야기고 보존해서 후대에 남겨줘야 할 유한한 지구환경보호 문화 확산에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김 유 진 큐레이터

1) 서길현, 「성육기법관 갤러리」 in 『조형환경개관전:제한적 자유』(2020)

2) 양초롱, 「은암미술관」 in 『Useless... but Beautiful』(2020)



초 대 작 가

# 조 창 환

Benjamin Changhuan Cho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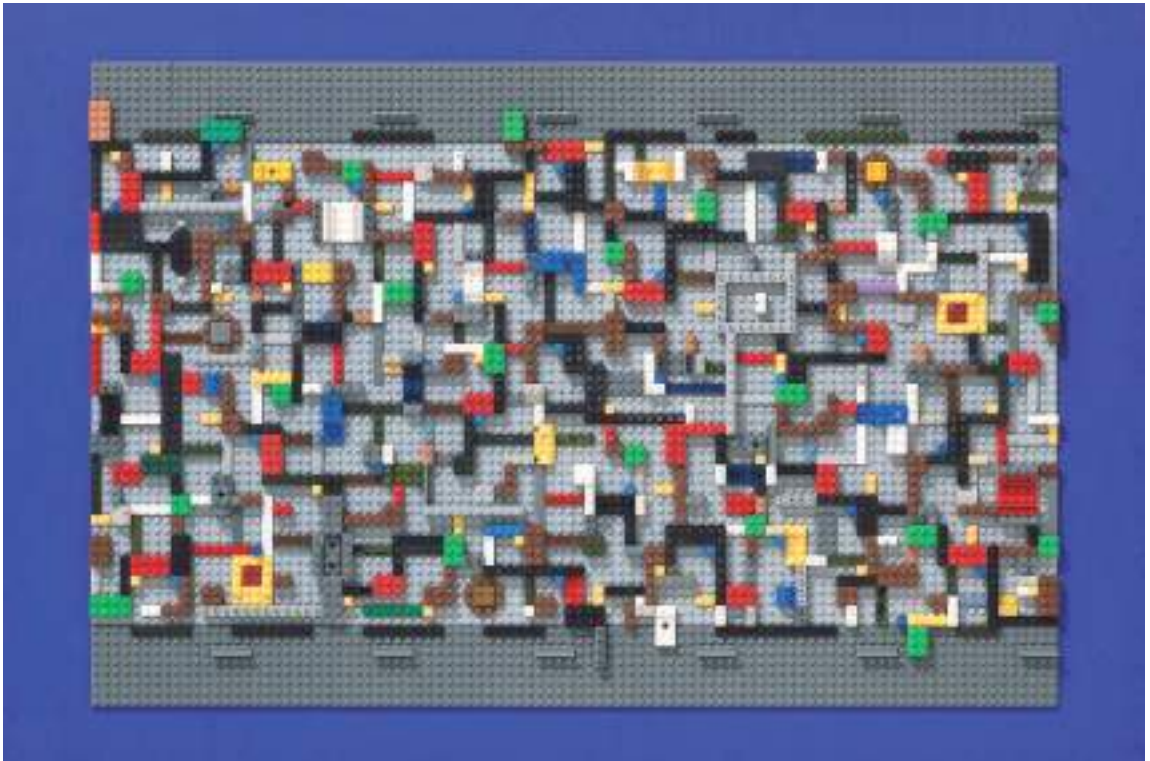
118×81cm  
패키지박스  
2017



무제

118×81cm  
패키지박스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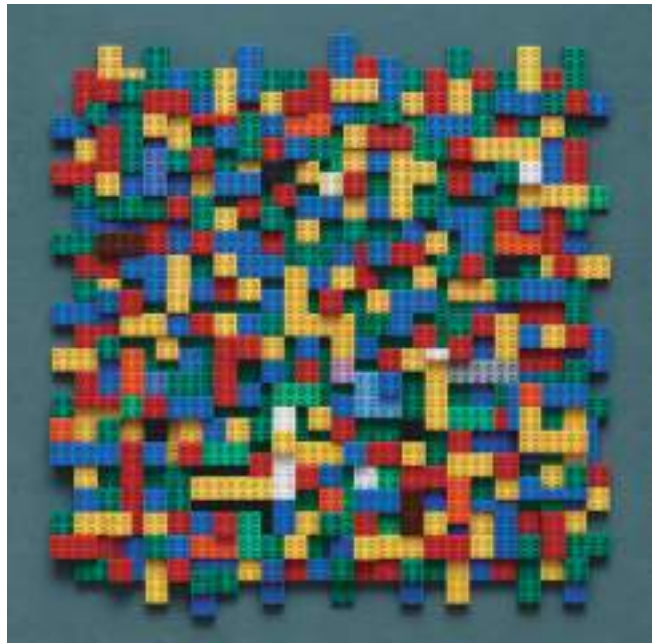
제한적자유

60×91cm  
오브제  
2020



제한적자유

90×90cm  
오브제  
2020



제한적자유

90×90cm  
오브제  
2020



제한적자유

90×90cm  
오브제  
2020



Double A  
60×30×130cm  
오브제, 패키지박스  
2017





**Hite**

60×30×130cm  
오브제, 패키지박스  
2017



**두얼굴**

50×40×60cm  
오브제, 패키지박스  
2017



**마리아**

35×25×80cm  
오브제, 패키지박스  
2017



스티커독

27×80×80cm  
패키지박스, 스티커  
2017



남과여

35×120×220cm  
오브제, 패키지박스  
2017



초 대 작 가

양 나 희

Yang, Na Hee





눈 내린 月山

112.1×162.2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18





해동네

162.2×130.3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18



**삶, 풍경**

62.5×118.5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20



**별의 시**

120×200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21



**밤의 연가**

65.1×90.9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20





**별의 시**

60.6×50.5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20

**별의 시**

60.6×50.5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20





원(願)

45.5×53.0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20



초설(初雪)

91.0×116.8cm

골판지 부조 위에 유채

2020



삶, 풍경

38×90cm  
골판지 부조  
2015





**삶, 풍경**

44×84cm  
골판지 부조  
2015

---

## 초대작가



## 조 창 환

Benjamin Changhuan Cho

---

### 약력

19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2011~2019 예술프로젝트 퍼즐H  
2019 자문박문화축제오픈스튜디오  
2020 오픈스튜디오(피움아트밸리,고성)

---

### 개인전

2021 무아,세종호텔세종갤러리,서울  
2020 제한적자유-인연,토포하우스,서울  
2020 제한적자유,성옥문화재단,목포  
2019 Beyond the world,아트스페이스퀼리아,서울  
2019 KALI,카페더나눔,남양주  
2019 Grottesque in Beauty, 짚은갤러리,홍성  
2018 더 가든-그로테스크와상상정원,아트스페이스퀼리아,서울  
2018 평창올림픽아트페스티벌,호텔인터불고원주  
2017 가든No9 퍼즐H기획초대전,갤러리울,고양

---

### 그룹전

2021 빌라다르2021,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서울  
2021 의정부미술문화축제"연결"전,의정부미술도서관  
2021 애미안마전,갤러리1898,서울  
2020 관계적 차연The relational difference,갤러리플렉스,서울  
2020 ART ON THE LIN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  
2020 큐브루시다,또는 정적속의시선,갤러리내일,서울  
2020 아트팬데믹프로젝트,가나아틀리에,장흥  
2020 GENESIS,아트스페이스케이씨,판교  
2019 평창동이야기전,아트스페이스퀼리아,서울  
2019 서로를 찾아가는 나눔의 여정,목포대학교도림미술관,갯바위미술관  
2019 PAMAF,의정부예술의전당  
2019 남북이산가족예술프로젝트"그리운얼굴",도라전망대  
2018 객관적 우연전,아트스페이스퀼리아,서울  
2018 남북이산가족예술프로젝트 "그리운얼굴",호텔인터불고원주  
2017 경기북부작가어울림전,의정부예술의전당  
2016 가을프로젝트"꿈과일상",양평군립미술관  
2016 세계미학자대회 대중예술축전특별전,아트센터화이트블럭,헤이리

---

초대작가



양 나 희

Yang, Na Hee

### 약력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수료

### 개인전/초대전 10여회(서울, 고양, 파주, 광주 등), 단체전 150여회

2020 광주미술상수상 올해의 청년작가전 'Useless... but Beautiful' (은암미술관, 광주)  
2019 공간의 미학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  
2018 바람이 분다 (씨떼데자르, 프랑스 파리)  
2017 아시아의 도시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외 다수 그룹전 참여

### 레지던시

2019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광주)  
2017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시 (광주)  
2016 윤아르떼 레지던시 (중국 상해)  
2015 99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중국 북경)

### 수상

2020 광주미술상  
2019 광주미술상 특별상  
2018 남도문화재단 청년작가공모전 선정작가상  
2016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우수상  
2009 전라남도미술대전 대상 외 다수 입상

###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목포시, 광주이노비즈센터, 남도예술은행, 남도학숙, 드영미술관 등

Profile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연말연시 특별초대기획전시

# 일상- 예술이 되다!展

초대작가

조창환 양나희

Benjamin Changhwan Cho Yang, Na Hee

주최·주관  목포시

발행처 목포시 문화예술과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발행일 2021. 11

전시·기획 김유진

디자인·출판 한라디자인 TEL. 061.278.9221

본 팸플릿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참여작가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연말연시 특별초대기획전시

# 일상 - 예술이 되다! 展

초 대 작 가

조 창 환 양 나 희

Benjamin Changhuan Cho Yang, Na Hee

주최  
주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58729 전남 목포시 유달로 116 ☎ 061-270-8300

*Daily life - Becoming Art*